

심야단속 영세업소 된서리

94.1.11

‘생계형’ 포장마차·호프집 주로 적발 밀실카페등 큰술집 교묘히 빠져나가

경찰이 최근 심야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대형 업소 등은 교묘한 방법으로 단속에서 빠져나가고 주로 ‘생계형’ 영세업소만이 적발돼 과소비 억제라는 애초의 단속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연말연시의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는 심야영업이 정부의 사정의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말부터 요정·룸살롱·스탠드바·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을 중점단속해왔다.

그러나 실제 경찰에 적발되는 업소는 주로 해장국집이나 포장마차 등 소규모 음식점이나 호프집 등 영세업소들에 그치고 있다.

9일 오전 1시15분께 서울 남부경찰서에 연행된 서울 구로구 시흥본동 L곰탕집 주인 김순임(42·여)씨는 “내가 다니는 교회 신도들이 심야기도를 마치고 찾아와 야식을 부탁해 곰탕 4그릇과 콜라 등을 팔던 중 들이닥친 경찰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8평짜리 가게에 식탁 4개를 갖춘 영세식당의 주인인 김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같은 교회 신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영업시간을 어겼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이상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30분간 영업시간을 초과한 혐의로 지난 8일 서울 북부경찰서에 입건된 서울 도봉구 미아3동 모호프 주인 김아무개(29)씨는 “밤 11시10분께 들어온 손님 4명이 맥주 7병을 시켜 마시다가 12시가 지나 나가라고 했는데도 ‘남은 술만 마저 마시고 가겠다’고 해 기다리다가 붙잡혀 왔다”고 울상을 지었다.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서 8평 규모의 호프집을 경영하다 지난 5일에 영업시간을 25분 넘겨 경찰에 연행된 최중애(30·여)씨는 “근처 공장에서 밤늦게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자주 들러 맥주 한두잔씩 마시고 가는데 이날도 밤 11시30분께 들어온 공장 노동자들이 ‘술은 시키지 않을 테니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가게 해달라’고 간청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초과했다”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속만 해서는 서민들이 배겨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영세상인들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과는 대조적으로 아직도 밀실을 차려놓고 은밀히 영업을 하는 심야카페 등은 쉽사리 적발되지 않고 있다.

9일 0시55분께 서울 강서경찰서

정문에서 불과 1백여m 떨어진 호슈퍼 앞길에서는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은밀히 접근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경찰서 뒤쪽 2백여m에 있는 이 지하 술집은 대형 네온사인 간판의 불을 꺼놓고 양주 한병에 4만5천원씩에 비밀심야영업을 하고 있었다. 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확인 결과 이 업소는 이미 심야영업으로 적발돼 오는 3월말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오전 1시께에도 서울 신림네거리 부근에서 가족 점퍼를 입은 청년 서너명이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1인당 10만~15만원이면 즐길 수 있고 추가로 2차도 할 수 있다”고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서울 일선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적발돼 온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면 ‘단속 목적이 이게 아닌데’하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할 게 아니라 해장국집이나 실내포장마차 등 ‘생계형 영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완화하고 대형 업소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